

‘생보자’유치원 무상교육

취원율 98년까지 65%로...EBS 낮방송 추진

안병영 교육부 장관

농어촌지역 생활보호 대상자와 도시 영세민 가정의 유치원 적령기 아동들에게는 조만간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이 실시된다. 또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위성방송 채널 1개가 교육부문에 투자되고, 교육방송의 낮 방송이 추진된다.

안병영 교육부장관은 28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가진 '5·31 교육개혁 1주년 기자회견'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히고 "현재 44% 수준인 유치원 취원율을 98년까지 65%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"이라고

말했다. 안 장관은 "농어촌 지역 생활보호 대상자와 도시 영세민 자녀의 무상 유치원 교육을 위해 앞으로 매년 4백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방침"이라고 밝혔다.

안 장관은 "일부에서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과외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. 이는 사실이 아니다"라고 밝혔다.

강세준 기자